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9년 8월 17일 국가직 7급-가책형

2019. 08. 1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문 1.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에서의 ‘말씀’은 ‘말’을 높여 이르는 단어이므로 ‘말’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해정아,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진짜 소중히 여기셨어.”에서의 ‘당신’은 3인칭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이다.
- ③ 남에게 말할 때는 자기와 관계된 부분을 낮추어 ‘저희 학과’, ‘저희 학교’, ‘저희 회사’, ‘저희 나라’ 등과 같이 표현해야 한다.
- ④ 요즈음 흔히 들을 수 있는 “그건 만 원이세요.”, “품질이입니다.”에서의 ‘-세요’, ‘-입니다’는 객체를 높이는 새로운 표현 방식이다.

01 ② 현대문법-높임법

‘당신’은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오답 풀이]

- ① ‘말씀’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웃어른 앞에서 자신의 말을 가리킬 때에도 ‘말씀’이라고 해야 한다.
- ③ ‘저희’는 말하는 이 자신이 포함된 ‘우리’를 낮춤으로써, 듣는 사람을 높이고자 할 때 쓰는 말이다. 그러므로 ‘저희 학과, 저희 학교’처럼 쓸 수 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같은 무리라면, 이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알맞다. 그리고 ‘나라’는 경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우리 한민족이 세운 나라를 스스로 이룰 때에는, 어떤 경우이든, ‘저희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를 써서 표현해야 한다.
- ④ 표준 언어 예절에서 ‘(가격이) 만원이입니다’, ‘문의하신 상품은 품질이입니다’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등은 객체높임법도 아니며,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문 2. 밑줄 친 부분이 ㉠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어근의 앞이나 뒤에 파생 접사가 결합된 것을 파생어라 한다. 파생 접사는 그 위치에 따라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누는데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없지만,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 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 ② 세 자매가 정답게 앉아 있다.
- ③ 옥수수 알이 크기에는 안 좋은 날씨이다.
- ④ 그곳은 낚시질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였다.

02 ② 현대문법-접사의 기능

㉡의 기본형은 ‘정답다’이며, ‘정(명사 어근)+답다(접사)’가 결합하여 형용사가 된 것이다. 따라서 어근의 품사가 바뀐 단어이다.

[오답 풀이]

- ①, ③, ④은 어근의 품사가 변하지 않았다.
- ① 보(동사의 어근)+기(명사형 어미)=보기(동사)
- ③ 크(동사의 어근)+ 기(명사형 어미)=크기(동사)
- ④ 낚시(명사 어근)+질(접미사)=낚시질(명사)

문 3.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애리조나주 북부의 나바호 인디언과 유럽계 미국인은 오랜 세월을 걸쳐 서로의 시간 개념을 적응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나바호인에게 시간은 공간과 같다. 즉 지금 여기만이 실재하며 미래라는 것은 현실감을 거의 주지 못한다. 나바호 마을에서 성장한 나의 옛 친구는 그 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바호인은 말[馬]을 사랑하고 경마로 내기하기를 즐기지. 그런데 만약 나바호인에게 ‘자네 지난 독립기념일에 플래그스태프에서 경주를 온통 휩쓸었던 내 말을 기억하지?’ 하고 물었을 때, ‘그럼, 기억하고말고.’ 하면서 그 말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고덕인다 해도 그에게 다시, ‘그 말을 다음 가을에 자네에게 주겠네.’ 하고 말하면 그는 낙담한 표정으로 돌아서서 가 버릴 것이네. 그러나 만약 ‘내가 방금 타고 온 저 비루먹은 말 알지? 영양실조에다 안짱다리인 저 늙은 말을 해진 안장과 함께 자네에게 줄게. 저놈을 타고 가게나.’ 하고 말하면, 그 나바호인은 희색이 만연하여 악수를 청한 다음 자신의 새 말에 올라타서 사라질 것이네. 나바호인은 눈앞에 보이는 선물만을 실감할 뿐, 장래의 이익에 대한 약속은 고려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 ① 나바호인은 기억력이 좋아서 기념일에 선물을 잘 챙긴다.
- ② 나바호인은 지금 여기만이 실재한다는 인식으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 ③ 나바호인은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마을 구획정리 사업에는 긍정적이지 않다.
- ④ 나바호인은 기마민족으로 말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말을 최상의 선물로 간주한다.

03 ③ 비문학-내용 추론

첫째 문단에서, 나바호인에게는 ‘지금 여기만이 실재하며 미래라는 것은 현실감을 거의 주지 못한다’는 설명과 둘째 문단의 ‘나바호인은 눈앞에 보이는 선물만을 실감할 뿐, 장래의 이익에 대한 약속은 고려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란 설명으로 보아 나바호인에게는 미래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오답 풀이]

- ① 나바호인의 기억력이나 기념일의 선물 등에 대해서는 제시 지문으로 추론할 수 없다.
- ② 나바호인이 ‘지금 여기만이 실재한다는 인식’을 한다는 설명은 바르지만,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지는 추론할 수 없다.
- ④ 나바호인이 ‘말[馬]을 사랑하고 경마로 내기하기’를 즐긴다는 설명은 있으나, ‘기마민족으로 말에 대한 애착’이나 ‘말을 최상의 선물로 간주’하는지는 알 수 없다.

문 4.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지금 뭐 하니?”라는 말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이가 컴퓨터로 학교 숙제를 하고 있다면 엄마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될 수 있지만, 게임에 열중하고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9년 8월 17일 국가직 7급-가책형

2019. 08. 1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있다면 질책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면 엄마의 말은 더 다양한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엄마도 컴퓨터를 좀 쓰자는 제안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심부름을 해달라는 요청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 밥을 먹으러 나오라는 명령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받는 말은 일정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 상황에 따른 의미의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십상이다.

- ① 같은 의미라도 어감의 차이는 생길 수 있다.
- ② 같은 말이라도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다.
- ③ 같은 발화라도 상황에 따라 기능이 다를 수 있다.
- ④ 발화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문자 텍스트 그 자체를 우선시해야 한다.

04 ③ 비문학-내용 확인

제시 지문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면 엄마의 말은 더 다양한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는 설명이 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③번이다.

[오답 풀이]

- ①의 ‘어감의 차이’, ②의 ‘억양’ 등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④ ‘문자 텍스트’가 아니라, 마지막 문장을 보면, ‘상황에 따른 의미의 해석’을 강조하고 있다.

문 5.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경음화는 장애음 중 평음이 일정한 환경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한국어의 대표적인 경음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평음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소리는 경음으로 발음된다.
㉢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연결되는 평음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 한자어에서 ‘ㄹ’ 뒤에 연결되는 ‘ㄷ, ㅌ, ㅈ’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 | ㉠ | ㉡ | ㉢ | ㉤ |
|--------|------|-------|-----|
| ① 잡고 | 담고 | 갈 곳 | 하늘소 |
| ② 받고 | 얹더라 | 발전 | 물동이 |
| ③ 놓습니다 | 삶더라 | 열 군데 | 절정 |
| ④ 먹고 | 꺼안더라 | 어찌할 바 | 결석 |

05 ④ 국어생활-표준발음법

- ㉠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평음은 경음으로 발음
• 먹고[먹꼬]

- ㉡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소리는 경음으로 발음
• 꺼안더라[꺼안떠라]
㉢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연결되는 평음은 경음으로 발음
• 어찌할 바[어찌할 빠]
다만,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할 수 있다
• 어찌할 바[어찌할 바]
㉤ 한자어에서 ‘ㄹ’ 뒤에 연결되는 ‘ㄷ, ㅌ, ㅈ’은 경음으로 발음
• 결석[결썩]

[오답 풀이]

①

- 잡고[잡꼬]→㉠
• 담고[담꼬]→<보기>에 제시되지 않은 발음 규칙이다.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갈 곳[갈꾼/갈꾼]→㉡
• 하늘소[하늘쏘]→ ‘하늘소’는 한자어가 아니라 순 우리말이다. 따라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 받고→㉠
• 얹더라[안떠라]→<보기>에 제시되지 않은 발음 규칙이다.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발전[발썬]→한자어이므로 ㉡이 아니라 ㉡에 해당한다.
• 물동이[물똥이]→ 한자어가 아니라 순수 우리말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 놓습니다[논썬다]→<보기>에 제시되지 않은 발음 규칙이다. ‘ㅎ(ㄷ, ㄷ)’ 뒤에 ‘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ㅌ’을 [ㅌ]으로 발음한다.
• 삶더라[삼떠라]→<보기>에 제시되지 않은 발음 규칙이다.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열 군데[열군데]→ ‘열’은 관형사이고, ‘군데’는 의존명사이다. 따라서 ㉡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절정[절썬]→㉡

문 6.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 내에 역에 도착하려면 가능한 빨리 달려야 합니다.
- ② 그는 그들에 뒤지지 않는 근력을 길렀기에 메달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 ③ 자율 학습 시간을 줄이는 대신 보충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입니다.
- ④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는 논평이 계속 이어지면서 발표 대회의 분위기는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06 ③ 국어생활-올바른 문장 표현

- ③ ‘시간이나 기간이 길어지다’를 뜻하는 ‘늘다’의 사동사는 ‘늘리다’이므로 바르게 쓰인 표현이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9년 8월 17일 국가직 7급-가책형

2019. 08. 1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참고로, ‘늘리다’, ‘늘이다’는 구분해서 써야 할 말이다.

1) ‘늘리다’는 ‘늘다’의 사동사다. 물체의 길이나 넓이, 부피 등이 커지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또는 수나 양이 많아지게 하는 것을 뜻한다.

예) 사무실을 늘리다.

학생 수를 늘리다.

시험 시간을 늘리다.

2) ‘늘이다’는 물체를 당기는 힘을 가해 본디의 길이보다 길어지게 하는 것이다. 아래로 길게 처지게 하는 것도 ‘늘이다’이다.

예) 고무줄을 늘이다.

주름을 늘이다.

[오답 풀이]

① 가능한 빨리→가능한 한(限) 빨리

‘가능한’은 ‘가능하다’의 관형사형으로 ‘가능한 일/ 가능한 수단/ 가능한 것’처럼 그 뒤에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이 와야 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限)’으로 써야 한다. 이때의 ‘한(限)’의 품사는 명사고 조건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가능한 한’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능한 조건 아래서’를 뜻하는 부사구이다. 그러므로 그 뒤에 ‘가능한 한 빨리(쉽게)’처럼 ‘빨리(쉽게)’라는 부사나, ‘가능한 한 같게’처럼 ‘가다’라는 동사가 와야 한다.

② 그들에→그들에게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키는 유정명사 뒤에는 부사격 조사 ‘에게’를 쓰고, 식물이나 무생물을 가리키는 무정명사 뒤에는 부사격 조사 ‘에’가 쓰인다. 따라서 사람을 뜻하는 대명사 ‘그들’에는 부사격 조사 ‘에게’를 써야 한다.

④ 효과적이지 않는→효과적이지 않은

• 동사는 어간 뒤에 관형사형 어미 ‘-은’과 ‘-는’이 모두 결합하여 활용하지만, 형용사는 어미 ‘-는’과는 결합하지 않는다. 동사 뒤에 붙어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는 ‘-은’, 현재를 나타내는 어미는 ‘-는’이고, 형용사 뒤에 붙어 현재를 나타내는 어미는 ‘-은’이다.

• 보조용언 ‘않다’는 본용언의 품사를 따른다. 본동사 뒤에서 ‘-지 않다’ 구성인 경우 보조 동사이고, 본형용사 뒤에서 ‘-지 않다’의 구성인 경우 보조 형용사이다.

• 보조용언 ‘않다’의 앞에 ‘효과적(명사)+이지(서술격조사의 활용형)’이 형태이다. 학교문법에서는 ‘이다’를 서술격조사로 분류한다. 하지만 ‘이다’는 용언처럼 활용을 하며, 그 양상은 대체로 형용사와 유사하다. 그래서 문법적 견해에 따라 ‘이다’를 ‘지정사’로 보기도 하고, ‘형용사’로 보기도 한다.

•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체언+서술격조사’ 뒤에 ‘않다’는 보조형용사이며, 보조형용사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할 수 없으므로 ‘않은’으로 표현해야 한다.

[참고] 과거의 사실을 서술하는 경우에는 관형사형 어미 ‘-은’을, 현재의 사실을 서술하는 경우에는 ‘-는’으로 표현한다.

문 7. 밑줄 친 ‘가토리’와 ‘都沙工’의 상황을 표현한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외헤 매게 쏘친 가토리 안과
大川 바다 한가운데 一千石 시른 빈에, 노도일코 닛도 일코 농
총도 근코 뚝대도 갓고 치도 빠지고, 바람부러 물결치고 안개 뒤
섯게 조자진 날에, 갈 길은 千里萬里 나은디 四面이 거머어득 저
뭇 天地寂寞 가치노을 켜느디, 水賊 만난 都沙工의 안과,
엇그제 님 여힌 내 안히야 엇다가 古을후리오.

① 孤子單身

② 螳螂拒轍

③ 磨杵作針

④ 百尺竿頭

07 고전문학-고시조:적절한 한자성어

초장에서는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 종장의 ‘절박한 상황의 도사공’의 심정은 매우 위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더할 수 없이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④의 백척간두(百尺竿頭)가 가장 적절하다. 참고로, 제시 작품의 상황에는 ‘진퇴유곡(進退維谷), 사면초가(四面楚歌), 설上加霜(雪上加霜), 진퇴양난(進退兩難), 풍전등화(風前燈火)’ 등도 쓰일 수 있으며, 지방직 9급에서도 출제된 문제이다.

① 고혈단신(孤子單身: 孤 외로울 고/子 외로울 혈/單 홀 단/身 몸 신) 의지할 곳 없이 외로운 홀몸. [유] 혈혈단신(孑孓單身)

② 당랑거철(螳螂拒轍: 螳 사마귀 당/螂 사마귀 랑/拒 막을 거/轍 바퀴 자국 철)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뜻으로, 자기의 힘은 헤아리지 않고 강자에게 함부로 덤빔.

③ 마저작침(磨杵作針: 磨 갈 마/杵 공이(절구나 방아확에 든 물건을 찧거나 뿔는 기구) 저/作 지을 작/針 바늘 침) ‘쇠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듦’이라는 뜻으로,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면 아무리 힘든 목표라도 달성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 [유] 마저성침(磨杵成針), 마부위침(磨斧爲針), 마부작침(磨斧作針),

④ 백척간두(百尺竿頭: 百 일백 백/尺 자 척/竿 낚싯대 간/頭 머리 두)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으니 위태로움이 극도에 달함. [유] 풍전등촉(風前燈燭), 풍전등화(風前燈火)

문 8.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① 이끄는 대로 따라갈밖에.

② 용수야, 5년만인데 한잔해야지.

③ 일이 오늘부터는 잘돼야 할텐데.

④ 태권도에서 만큼은 발군의 실력을 낼 거야.

08 ① 국어생활-띄어쓰기

• 이끄는 대로(○)

체언 뒤에 ‘대로’는 보조사로서 앞말에 붙여 쓰지만,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따라갈밖에(○)

‘-ㄹ밖에’는 ‘-ㄹ 수밖에 다른 수가 없다’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므로 어간에 붙여 쓴다.

[오답 풀이]

② 5년만인데→5년 만인데

• ‘만’이 시간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의미인 경우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는데’는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참고로, ‘데’가 ‘곳, 장소, 일, 것, 경우’의 의미일 경우에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한잔(○)

정확하게 수량을 헤아리고자 하는 것이라면 ‘한 잔’과 같이 띄어 쓰는 것이 맞다. 그러나 제시 문자에서처럼 간단하게 한 차례 마시는 차나 술을 뜻하는 경우에는 명사 ‘한잔’을 쓴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9년 8월 17일 국가직 7급-가책형

2019. 08. 1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③ 할텐데→할 텐데

- 잘돼야(○)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지다.”의 뜻을 나타내는 문맥에서 는 동사 ‘잘되다’를 쓴다.

- 할텐데.→할 텐데

‘텐데’는 ‘터인데’의 준말이다. 이때의 ‘터’는 명사이다. 따라서 ‘할’이 관 형사형 어미 ‘ㄹ’ 뒤에 ‘터인데’는 띄어써야 한다.

④ 태권도에서 만큼은→태권도에서만은

- 체언이나 조사 뒤에 ‘만큼’은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날’의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거야’는 ‘것이야’의 준말로로서, 이때의 ‘것’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문 9. 밑줄 친 단어의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침이면 얼굴이 부어서 늘 고생이다. (→붓다)
- ② 개울물이 불어서 징검다리가 안 보인다. (→불다)
- ③ 은행에 부은 적금만도 벌써 천만 원이다. (→붓다)
- ④ 물속에 오래 있었더니 손과 발이 퉁퉁 불었다. (→붓다)

09 ② 국어생활-한글맞춤법

②의 ‘불어서’는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의 뜻으로 기본형은 ‘붓다’이 다.

- ‘붓다’의 의미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예 오래되어 불은 국수는 맛이 없다.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

예 개울물이 붓다

체중이 붓다

재산이 붙는 재미에 힘든 줄을 모른다.

㉢주로 ‘몸’을 주어로 하여 살이 찐다.

예 식욕이 왕성하여 몸이 많이 불었다.

[오답 풀이]

① 붓다

㉠살가죽이나 어떤 기관이 부풀어 오르다.

예 얼굴이 붓다.

울어서 눈이 붓다.

㉡(속되게) 성이 나서 뽀로통해지다.

예 왜 잔뜩 부어 있나?

③ 붓다

㉢액체나 가루 따위를 다른 곳에 담다.

예 어머니는 냄비에 물을 붓고 끓였다.

㉣모종을 내기 위하여 씨앗을 많이 뿌리다.

예 모판에 법씨를 붓다.

㉤불입금, 이자, 갚돈 따위를 일정한 기간마다 내다.

예 은행에 적금을 붓다.

㉥시선을 한곳에 모으면서 바라보다.

예 소년은 수평선에 눈을 부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④ ‘살가죽이나 어떤 기관이 부풀어 오르다.’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붓 다’를 쓰고,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불다’ 를 쓴다. 따라서 ②와 같은 ‘붓다’의 의미이다.

문 10. 밑줄 친 단어의 맞춤법이 옳은 것은?

- ① 그대와 추억이 있으매 저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 ② 신제품을 선했어도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 ③ 생각지 못한 일이 자꾸 생기니 그때의 상황이 참 야속터군요.
- ④ 그 발가송이 몸뚱이가 위로 번쩍 쳐들렀다가 물속에 텅텅 쳐박 히는 순간이었습니다.

10 ① 국어생활-한글맞춤법

①의 ‘있으매’는 ‘있(어간)+으매(어미)’의 구성으로, 이때의 ‘-으매’는 어떤 일에 대한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참고로, ‘있음에’는 ‘있(어간)+음(명사형 어미)+에(부사격 조사)’의 구성이다. 이때의 부사격조 사 ‘에’도 앞말이 원인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다만, 어감상 ‘있으매’는 ‘있 으므로’, ‘있음에’는 ‘있기 때문에’와 비슷하다.

예 나라가 있으매 우리가 있다

돈이 없고 있음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오답 풀이]

② 선했어도 → 선했어도, 선보였어도

기본형이 ‘선보이다’이고, ‘선보이+았어도’의 구성이다. 따라서 ‘선보이었 어도’의 준말을 정리해 보면

- ‘ㅣ’ 뒤에 ‘- 어’가 와서 ‘ㅊ’로 준 대로 적는다.

선보이었어도→선보였어도

- ‘ㅛ’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ㅛ’로 적는다.

선보이었어도→선보였어도

- ‘ㅛ’ 뒤에 ‘-어/었-’이 어울려 ‘ㅛ’로 적는다.

선보였어도→선뵈어도

그러므로 ‘선보이었어도, 선보였어도, 선뵈어도, 선뵈어도’ 등으로 표 기해야 한다.

③ 야속터군요.→ 야속더군요.

기본형은 ‘야속하다’이고, ‘야속하더군요’의 준말이다. 안울림소리인 ‘ㄱ, ㅂ, ㅅ, 받침’ 뒤에 ‘-하’는 그대로 탈락한다. 따라서 ‘야속하더군요’의 준 말은 ‘야속더군요’이다.

④ 쳐박히는 →쳐박히는

‘쳐-’는 ‘마구’, ‘많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따라서 ‘매우 세게 박 다’는 ‘쳐박다’이고, ‘쳐박다’의 피동사는 ‘쳐박히다’로 쓴다.

문 11.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자:

작가: 내가 작품을 쓰면서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것은 작품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를 살려 놓아야 독자들의 공 감대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소설이 아무 리 허구적 장르라 해도 사실성에 근거해야 비로소 생동감 과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습작 시절부터 취재를 우선시켰지 요. 전집에 실린 「○○기행」, 「○○를 찾아서」 같은 단편들 도 거의 취재를 통해서 얻어 낸 자료를 가지고 쓴 작품들 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 리얼리티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작품이 힘을 얻을 수 있었지요. 그것은 분명 작 가 수업에도 보탬이 됐고 공감을 얻는 데도 기여를 했다고 봐요.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9년 8월 17일 국가직 7급-가책형

2019. 08. 1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① 선생님은 작품을 쓰면서 언제부터 취재를 하시는지요?
- ② 선생님의 이번 신작에서 리얼리티가 강조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 ③ 선생님의 작품 중 독자들의 공감을 얻은 작품은 어떤 것들인지요?
- ④ 선생님이 작품 활동에서 취재에 주력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11 비문학-빈칸 추론

기자의 질문 뒤에 바로 뒤에 이어지는 작가의 답변을 보면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것은~생각했기 때문이에요'이다. 즉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는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답변에 적합한 질문은 ④번이다.

문 12.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은 일곱 자의 몸뚱이를 지니고 있지만 마음과 이치를 제하고 나면 귀하다 할 만한 것은 없다. 온통 한 껍데기의 피고름이 큰 뼈 덩어리를 감싸고 있을 뿐이다.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신다. 옷을 입을 줄도 알고 음탕한 욕망을 채울 줄도 안다. 가난하고 천하게 살면서 부귀를 사모하고, 부귀하게 지내면서 권세를 탐한다. 성날 때는 싸우고 근심이 생기면 슬퍼한다. 궁하게 되면 못 하는 짓이 없고, 즐거우면 음란해진다. 무릇 백 가지 하는 바가 한결같이 본능에 따르니, 늙어 죽은 뒤에야 그만둘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를 짐승이라 말하여도 괜찮을 것이다.

- ① 근심과 슬픔은 늙기 전까지 끊이지 않는다.
- ② 빈부 격차는 인간 삶의 지향성에 영향을 준다.
- ③ 마음으로 본능을 다스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 ④ 자연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에게 본능적이다.

12 ③ 비문학-글쓰기의 주장

글쓰기는 사람은 마음과 이치를 제하고 나면 본능에 따르는 짐승이라 말하여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 즉 짐승과 다르게 '마음과 이치'의 소중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문 13.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대의 체험은 40대의 체험을 못 따르고, 40대의 체험은 70대의 체험을 못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자(莊子)도 소년(少年)은 대년(大年)을 못 따른다고 했다. 그러나 인간이 장수를 한들 몇백년을 살 것인가. 수백 년 수천 년의 체험은 오직 독서를 통해서만 얻을 것이니,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독서가 문제인 것이다. 책이 너무 많아 일생을 읽어도 부족하다고 걱정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 눈을 꼭 한번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는 서적이란 열 손가락을 넘지 아니할 것이다. 박학다식이니 박람강기니 하여 널리 알고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이것이 오히려 글 쓰는 데 지장이 될 수 있다. 잡박한 지식의 무질서한 기억은 우리의 총명을 혼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① 널리 알고 많이 기억하는 것이 글쓰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 ② 70대의 독서가 20대의 독서보다 글쓰기에 더 도움이 된다.
- ③ 인간의 체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독서가 중요하다.
- ④ 자신에게 필요한 독서를 해야 한다.

13 ② 비문학-내용 확인

제시 글에 '40대의 체험은 70대의 체험을 못 당할 것'이란 내용은 있다. 또한 '체험은 오직 독서를 통해서만 얻을 것이니,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독서가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70대의 독서가 20대의 독서보다 글쓰기에 더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제시 글에서 확인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둘째 단락에서, '박학다식이니 박람강기니~이것이 오히려 글 쓰는 데 지장이 될 수 있다'는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첫째 단락에서,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고, 결국 '체험은 오직 독서를 통해서만 얻을 것'이라는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둘째 단락에서, 글쓰기는 '내 눈을 꼭 한번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는 서적이란 열 손가락을 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러므로 책이 너무 많아 일생을 읽어도 부족하고 걱정하지 말고 '내 눈을 꼭 한번 거쳐야 할' 즉 자신에게 필요한 독서를 하라는 것이다.

문 14.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을지?”

㉡“개수작 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그는 현관에 벗어 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꼭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치였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걸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걸기 시작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이래 봐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यो.”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 윤홍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

<보기>

- ㄱ. ㉠: '나'가 '그'에게 희망을 주려고 한다.
- ㄴ. ㉡: '나'의 말을 '그'가 곧이듣지 않으려고 한다.
- ㄷ. ㉢: '그'가 '나'보다 학력 면에서 우월함을 표현하고 있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9년 8월 17일 국가직 7급-가책형

2019. 08. 1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문 16. 다음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조선국 건양 원년 자주독립 기뻐하세.
천지간에 사람 되어 진충보국 제일이니,
임금께 충성하고 정부를 보호하세.
인민들을 사랑하고 나라기를 높이 다세.
나라 도울 생각으로 시종여일 동심하세.
부녀 경대 자식 교육 사람마다 할 것이라.
집을 각기 흥하려면 나라 먼저 보전하세.
우리나라 보전하기 자나 깨나 생각하세.
나라 위해 죽는 죽음 영광이지 원한 없네.
국태평 가안락은 사농공상 힘을 쓰세.
우리나라 흥하기를 비나이다 하나님께.
문명개화 열린 세상 말과 일과 같게 하세.

- ① 여성을 존중할 것을 사람들에게 피력하고 있군.
- ② 위급한 나라의 형세를 구체화하면서 언행일치를 요구하고 있군.
- ③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부국강병을 위해 노력하자고 주장하고 있군.
- ④ 외세의 침략으로 국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서구적 가치관이 범람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군.

16 ① 현대문학-개화가사: 종합적 감상

본문의 내용 중 '부녀 경대'는 '부녀자를 공경하여 접대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①의 내용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마지막 구절 '말과 일과 같게 하세'는 '언행일치'를 뜻한다. 그러나 '위급한 나라의 형세를 구체화'한 부분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③ '나라기를 높이 다세, 우리나라 보전, 우리나라 흥하기, 문명개화' 등은 부국강병을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을 부러워하지 말자는 내용은 없다.
- ④ '외세의 침략으로 국가의 독립성이 훼손'이나 '서구적 가치관이 범람하는 상황'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출전: 최돈성, '애국가'

1. 해제: 1896년 4월 11일 <독립 신문> 제3호에 발표된 '애국가' 계열의 첫 작품이다. 청나라와의 종속 관계를 벗어나 자주 독립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인하는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처음으로 사용함에 즈음하여 그 기쁨과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신념을 노래한 것이다.

개화 가사(開化歌辭)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시가인 가사의 형식에 갑오개혁 이후의 개화 사상을 담아 노래한 시가를 뜻한다. 이 작품 또한 개화기에 발표된 가사이므로 애국적인 내용이 추가 되어 있다.

조선 시대에는 원래 자체적인 연호를 제정하지 않았는데, 1896년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일본의 강요에 의해 고종이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처음 사용하였다. 어쨌든 연호(年號)를 사용하고 황제를 칭한다는 것은 자주 독립국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 노래는 이러한 배경에서 창작이 되었는데, 자주 독립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임금에게 충성하고, 정부를 보호하며, 부녀자를 공경하여 접대하고, 자식의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교훈적인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

2. 핵심 정리

- 1) 갈래: 개화 가사
- 2) 성격: 교훈적, 계몽적, 민족적
- 3) 주제: 자주독립에 대한 의지와 애국심 고취

4) 특징

- 4음보, 4·4조. • 유교적 의식이 반영됨.

문 17.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팔렘시스트(palimpsest)란 원래 양피지 위에 글자가 여러 겹 겹쳐서 보이는 것을 일컫는다.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양피지에 글을 썼는데 양피지는 귀했기 때문에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이미 쓰여 있는 글자를 지우고 그 위에 다시 글자를 쓰는 일이 빈번했다. 이로 인해 이전에 쓴 글자 위로 새로 쓴 글자가 중첩되어 보이는 현상이 벌어졌다. 건축에서는 이러한 팔렘시스트를 오래된 역사적 흔적이 현재의 공간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원용하고 있다.

가장 손쉬운 예로 서울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을 들 수 있다. 조선 시대 한양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부재하였다. 하지만 물은 인간 생활에 가장 필요한 기본 요건인바,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당시 주거들은 한강의 지류 하천을 따라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실개천 주변으로 주거들이 들어서게 되고 그 옆으로 사람과 말들이 지나다니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수변(水邊)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하천을 상하수도 시설처럼 사용하는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위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동시에 자동차가 급증하여 자동차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도시 형성의 필수 조건으로 부각되면서 하천 주변은 상당 부분 자동차 도로로 바뀌었다. 강북의 도로망 가운데 많은 부분이 구불구불한 자연 하천과도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산업화 이후 대형 간선도로의 등장이 본격화되면서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 커뮤니티는 간선도로에 의해 나뉘지게 된 것이다.

- ① 팔렘시스트는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 양피지를 재활용하면서 빚어진 현상을 말한다.
- ② 하천이 커뮤니티의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간선도로가 커뮤니티를 나누고 있다.
- ③ 도시 주거의 기본 요건 중 하나가 상하수도 시설이기 때문에 하천 주변이 자동차 도로가 된 것은 필연적이다.
- ④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은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던 시절의 흔적이 현재의 공간에 영향을 미친 팔렘시스트의 예이다.

17 ③ 비문학-내용 확인

셋째 단락에서, '자동차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도시 형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도시 주거의 기본 요건 중 하나가 상하수도 시설'이라는 설명은 바르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첫째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셋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둘째 단락의 내용에서 현재의 공간에 영향을 미친 팔렘시스트의 예로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을 제시하였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9년 8월 17일 국가직 7급-가책형

2019. 08. 1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문 18. 다음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흠어 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 버리면
억만 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虛無)한디!’ 독은 차서 무엇 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덩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 김영랑, 「독을 차고」 -

- ①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恨)하노라.
주려 주글진들 채미(採薇)도 하느것가.
비록애 푸새엣 거신들 그 뉘 싸해 낫드니.
- ② 짚방석(方席) 내지 마라, 낙엽(落葉)엔들 못 안즈라.
술불 혀지 마라, 어제 진 돌 도다 온다.
아히야, 박주산채(薄酒山菜)≒망정 엇다 말고 내여라.
- ③ 내 언제 무신(無信)하야 님을 언제 속엿관디
월침삼경(月沈三更)에 온 쫓지 전혀 엇다.
추풍(秋風)에 지는 님 소리야 낸들 어이하리오.
- ④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로 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계워 하노라.

18 ① 현대시-시적 화자의 정서

제시 작품에서 ‘독’을 차는 행위는 억압적인 현실에 맞서 영혼의 순수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시적 화자의 정서는 저항적이며, 의지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정서를 보이는 작품은 ④번이다. ④는 사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성삼문의 작품으로, 세조가 단종을 폐위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자, 이에 항거한 작가가 은나라의 충신 백이, 숙제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굳은 의지를 강조한 절의가이다.

[오답 풀이]

- ② 한호의 작품으로, 산촌 생활의 여유와 한가로움, 안빈낙도(安貧樂道)를 노래하고 있다.
- ③ 황진이이 작품으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연정가이다.
- ④ 원천석의 ‘회고’이다. 고려의 패망과 회고의 정이 드러나 있다.

※출전: 김영랑, 「독(毒)을 차고」

1. 해제 이 작품은 일제 강점하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

려는 삶의 자세와 대결 의지를 그리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허무한 세상에 독(毒)은 차서 무엇하느냐는 벗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죽는 날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해 끝까지 독을 차고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독’은 험난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려는 화자의 순결성과 대결 의지의 표현이다.

2. 핵심 정리

- 1) 갈래: 자유시. 서정시, 참여시
- 2) 성격: 의지적. 직서적. 저항적. 상징적. 우의적
- 3) 어조: 의지가 결연한 남성적 어조
- 4) 표현: 주정적 정감의 직서적 표출
- 5) 특징: 상징에 의한 심상. 두 삶의 자세의 대조(벗은 순응적이고, 나는 의지적이다.)
- 6) 구성 : 화자의 이동에 따른 구성
 - 1연: 벗과의 대화-‘독’을 차고 살아가는 ‘나’
 - 2연: 벗의 충고-허무주의적 세계관을 지닌 ‘벗’의 충고와 회유
 - 3연: 독(毒)을 찬 배경-‘독’을 차고 살 수밖에 없는 험난한 현실
 - 4연: 나의 결의-‘독’을 차고 살아가려는 ‘나’의 의지
- 7) 제재: 독(毒)
- 8) 주제:
 - 일제 강점하의 현실에 저항하는 대결 의지
 - 순결한 삶의 의지. 현실에 대결의 의지,
 - 식민지 현실에 대한 대결 의식과 삶의 의지

문 19. ㉠~㉢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

기호를 기표와 기의의 결합으로 보는 것은 언어학의 ㉠공리이다. 그리고 그 결합이 ㉡자의적이라는 점 또한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그러나 음성 상징어로 총칭되는 의성어와 의태어는 여기에서 예외로 간주되곤 한다. 즉 의성어와 의태어는 기표와 기의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① ㉠ 共理
- ② ㉡ 自意的
- ③ ㉢ 常識
- ④ ㉣ 緣關性

19 ③ 한문-한자 어휘

㉢은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보통의 지식을 의미하는 ‘상식(常識)’으로 바르게 쓰였다.

- ① ㉠ 공리(共理: 共 한가지 공/理 다스릴 리)→ 공리(公理: 公 공평할 공/理 다스릴 리) 일반 사람과 사회에서 두루 통하는 진리나 도리.
- ② ㉡ 자의적(自意的: 自 스스로 자/意 뜻 의/的 과녁 적)→자의적(恣意的: 恣 마음대로)방자하다 자/意 뜻 의/的 과녁 적)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
- ③ ㉢ 상식(常識: 常 떼떼할(항상) 상/識 알 식)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보통의 지식.
- ④ ㉣ 연관성(緣關性: 緣 인연 연/關 관계할 관/性 성품 성)→연관성(聯關性: 聯 연이을 연/關 관계할 관/性 성품 성) 사물이나 현상이 일정한 관계를 맺는 특성이나 성질.

2019. 08. 1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문 20.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에 미래 전략을 연구하는 부서가 급증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들은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과 미래 예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렇지만 빠른 변화와 복합적인 세계화로 미래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 결과, 기관은 컴퓨터 시스템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으며, 빅데이터와 연결된 인공지능을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증폭시킨 것이 적시에 지식을 제공해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집단 지성 시스템이다. 이는 인간의 두뇌, 지식 정보 시스템 등의 개체들이 협력이나 경쟁을 통해 기존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성을 얻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집단 지성 시스템을 활용하면 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재해를 예측하고, 재해에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회복하는 복원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기에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분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의사 결정자들은 미래학자에게서 단순히 전망 보고나 브리핑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과 정기적으로 장기적인 사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의 논의 과정이야말로 빠르고 정확한 의사 결정 수립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입법부에 미래위원회가 설립되고 정부 지도자 의사 결정 과정에 미래학자가 참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① 기관은 미래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 ② 미래학자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된 의의는 미래 예측 시스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 ③ 정부와 기업의 의사 결정자들은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미래 예측 능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발생 가능한 재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복원 시스템을 수립하는 데 집단 지성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20 ② 비문학-내용 확인

셋째 단락의 내용을 보면, ‘장기적 관점의 논의 과정이야말로 빠르고 정확한 의사 결정 수립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의사 결정 과정에 미래학자가 참여하는 이유’라고 하였다. 따라서 ‘미래 예측 시스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은 바르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둘째 단락의 첫 문장에서 ‘기관은 컴퓨터 시스템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알 수 있다.
- ③ 둘째 단락을 보면,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들은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과 미래 예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알 수 있다.
- ④ 둘째 단락에서, ‘집단 지성 시스템을 활용하면 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재해를 예측하고, 재해에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회복하는 복원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